

# 창공에 떠오른 식민지 민중의 꿈 '떴다 보아라 안창남'



'다이쇼'(大正) 5년(1916) 어느 날, 연호마저 빼앗겨버린 식민지 조선의 섬 여의도에 수많은 군중이 운집했다. 식민지의 어둠은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듯이 하늘은 쾌청했다. 이 날 파란 눈의 한 이방인이 군중의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며 의기양양하게 나타났다.

한국 최초로 비행쇼를 벌이기 위해 초청된 미국인 비행사 스미스였다. 군중 가운데 유독 눈빛을 빛내며 진기한 구경거리에 넋을 빼놓고 있는 한 소년이 있었다.

훗날 '떴다 보아라 안창남'이라는 유행가의 주인공이 된 한국 최초의 비행사 안창남(1901~1930)이 바로 그였다.

그로부터 6년의 세월이 흐른 1922년 12월 10일, 다시 여의도에 인파가 몰려들었다. '비행사' 안창남이 고국방문 비행을 하던 날이었다.

그가 탈 비행기에는 '금강호'란 이름이 박혀 있었다. 시험비행은 두 차례에 걸쳐 행해졌다. 1차 비행은 12시 23분 활주로를 떠나 저공을 날랐고, 2차는 고공비행이었다.

식민지 백성들은 이날만큼은 망국민의 설움을 날려버리고 환호했다. 당시 동아일보사 대표였던 송진우는 식당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여러분, 오늘은 무한히 기쁜 날입니다. 이는 우리의 젊은 아들인 안창남군이 개선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실로 안창남군의 개선이야말로 비단 안창남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 전체의 영광입니다."

다시 시간은 흘러 제국의 광기가 한반도 상공을 뒤덮고 있던 1930년 4월 10일, 서른 살로 접어든 안창남은 중국 산서성(山西省)에 있었다. 독립투사들을 돕기 위해 중국 상해로 왔다가 다시 이곳으로 옮겨왔다.

당시 비행기가 없는 임시정부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산서성 염석산 장군 휘하에서 비행사의 길을 걷는 것이 좋겠다는 여운형의 권고를 받아들인 것이었다. 어느 날처럼 하늘로 날아오른 안창남은 끝내 불귀의 객이 되고 말았다. 식민지 백성의 비원을 안고 비상했던 젊은 청년의 육체를 하늘이 삼켜버린 것이었다.

안창남의 비상과 추락은 짧고도 격렬했다. 그가 추락함으로써 하늘에 띄운 민족의 영광과 희망도 한순간 꺼져버렸다. 그의 짧은 생애는 한마디로 꿈을 향한 고투와 고독에 대한 항거나 마찬가지였다.

1901년 서울의 중류층 가문에서 태어난 안창남은 잠시 순탄한 길을 걸었다. 그러나 생모가 세상을 떠나자 그에게는 고독이 찾아들었다. 계모와의 불화가 젊은 영혼에 상처를 입혔다. 이 무렵부터 그는 지상의 삶에 미련을 버리고 하늘을 꿈꾸기 시작했다.

스미스의 비행쇼를 계기로 그는 현해탄을 건넜다. 오사가 자동차 학

교에서 운전기술을 배운 후 고국에 돌아와 운전수가 되었지만, 비상을 꿈꾸던 그의 성에 찰 리가 없었다.

그는 다시 일본에 건너가 도쿄의 고쿠리(小栗) 비행학교에서 비행기 조종술을 배웠다. 그의 능력이 워낙 출중했던지 노후한 비행기를 타야 했던 위험한 비행에서 사고 한번 일으키지 않았고 심지어 고장난 비행기를 고치는 재능을 발휘하기도 했다.

드디어 1921년 그는 비행사 시험에 합격해 일본에서 최초로 발급하는 비행사 면허증을 땀다. 한국인으로서 최초의 일이었다.

이듬해 귀국해 조선인의 기개를 떨친 고국 비행의 영광을 뒤로 한 채 그는 다시 일본으로 건너가지 않을 수 없었다. 그가 타야 할 비행기가 조국에 아직 한 대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안창남은 일본의 도쿄 항공학교 강사로 잠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했지만, 1923년 도쿄 대지진 때문에 이 생활도 곧 중단되고 말았다. 지진의 원인을 한국인들에게 돌린 일본인들의 광기어린 학살극 속에서 그는 몸을 숨길 수밖에 없었다.

이때 안토라는 가명으로 간신히 목숨은 부지했지만, 약소민족의 비애를 뼈저리게 깨닫지 않을 수 없었다.

다시 조국에 돌아와 실의의 나날을 보내다 그는 마지막 희망을 찾아 죽음이 기다리는 중국 땅으로 향했다.

따지고 보면 안창남은 그저 한 명의 조종사에 불과했다. 다만 '최초'라는 영예를 차지했다는 점에서 조금 유별났을 뿐이다.

그러나 그는 조종사 그 이상이었다. 그의 비행기가 갈랐던 것은 식민지의 한과 설움으로 물기가 마른 적이 없는 하늘이었다.

그의 비상은 지상의 고단한 삶을 견뎌야 했던 식민지 민중들이 쏘아 올린 희망의 수직선이었다. 그는 고독하게 혼자 날지 않았다. 그의 곁에는 남루한 조국의 역사가 늘 함께 있었다. **KOVA**



**박천홍의 새책** \_ 우리의 근대는 철도에서 비롯되었다. 그 기적소리는 한반도를 어떻게 바꾸었을까. **《매혹의 질주, 근대의 횡단》**(산처럼 펴냄)은 철도라는 근대의 상징을 통해 한반도가 강제로 떠안은 근대의 풍경을 생생하게 묘사·해석한다.